

## 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5

권 기 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팀장)

###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전체
GDP		1.2	-3.8	2.1	3.1	2.5	3.3	-5.7	-0.1
1인당 GDP	% (연증가율)	1.0	-4.3	0.9	2.2	1.2	1.5	-8.3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17.1	8.9	4.3	5.0	2.7	3.5	116.1	12.4
명목 GDP	십억 달러	606	1,764	241	295	1,165	192	515	5,608
1인당 명목 GDP	달러	13,945	8,487	13,414	6,109	9,168	6,115	16,524	8,847
1인당 GDP (구매력기준)		25,581	12,355	22,959	9,739	15,345	12,602	16,469	13,993
실업률	%	6.3	6.9	6.3	9.6	5.1	6.5	-	6.6
총외채		149	350	149	108	291	64	132	1,430
수출		64.7	188.2	65.0	38.3	380.8	33.8	37.8	1,017.7
수입	십억 달러	60.6	171.6	61.3	51.9	395.2	36.4	39.2	1,060.6
무역수지		4.1	16.6	3.7	-13.6	-14.5	-2.6	-1.4	-42.9
외환보유고		27	361	39	47	182	62	15	825
경상수지	% (GDP 대비)	-2.0	-3.6	-1.5	-6.5	-2.8	-3.3	-4.4	-3.1
재정수지		-4.8	-9.3	-2.8	-4.1	-3.2	-1.4	-13.7	-5.5

주 | 2015년 국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자료 | GDP증가율은 IMF; 1인당 GDP 증가율, 총외채, 외환보유고, 순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 II. 실물경제지표

### 1. 경제성장률

::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국제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0.1%)을 기록함.

| 2014년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은 국별/소지역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임.

|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로 남미지역 경제는 1.6% 하락함.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음.

• 남미 국가 중에서는 페루와 콜롬비아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그에 반해 멕시코 및 중미지역 경제는 2.9% 성장률을 기록해 남미지역과 뚜렷한 성장 격차를 보임.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의 경제성장률은 4.4%에 달함.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8.4	0.8	2.9	0.5	1.2
브라질	3.9	1.9	3.0	0.1	-3.8
칠레	5.8	5.5	4.0	1.8	2.1
콜롬비아	6.6	4.0	4.9	4.4	3.1
멕시코	4.0	4.0	1.3	2.3	2.5
페루	6.5	6.0	5.9	2.4	3.3
베네수엘라	4.2	5.6	1.3	-3.9	-5.7
라틴아메리카	4.9	3.2	3.0	1.3	-0.1

주 | 2015년은 IMF 추정치  
자료 | IMF.

## 2. 산업 생산

:: 경제성장 둔화를 반영해 라틴아메리카의 산업생산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산업생산이 하락세를 보임.

- 산업생산이 하락한 4개국 중에서도 브라질(-8.3%)과 베네수엘라(-5.5%)에서의 산업생산 감소가 현저함.
- 그간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던 칠레의 산업생산도 2015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섬.
-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 연속 산업생산이 하락세를 보임.

| 그에 반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에서 산업생산은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 증가폭은 2014년에 비해 크게 약화됨.

주요국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6.7	-7.7	-0.1	-1.9	-0.4
브라질	0.5	-2.7	2.2	-2.9	-8.3
칠레	6.6	6.1	3.4	0.5	-0.5
콜롬비아	4.9	-0.3	-1.4	1.6	0.3
멕시코	3.4	2.9	-0.5	2.6	0.9
페루	4.3	-0.4	15.8	4.8	3.1
베네수엘라	1.8	1.9	-0.7	-3.9	-5.5
라틴아메리카	2.7	-0.7	1.3	-0.8	-3.4

주 | 2015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 3. 민간 소비

:: 그간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민간소비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섬.

| 민간소비 성장세 둔화는 교역조건 악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 고용 창출 및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금융권의 신용대출 축소 등에 연유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서 민간소비 하락세가 현저함.

| 베네수엘라에서는 2년 연속 민간소비가 하락했으며 브라질에서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함.

|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됨.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증가함.

#### 주요국의 실질민간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10.3	4.4	4.4	-0.5	0.6
브라질	4.8	3.5	3.5	1.3	-4.1
칠레	8.9	6.1	5.9	2.2	1.7
콜롬비아	6.0	4.4	3.8	4.4	3.4
멕시코	4.8	4.9	2.2	1.8	3.0
페루	6.0	6.1	5.3	4.1	3.2
베네수엘라	4.0	7.0	4.7	-3.4	-8.3
라틴아메리카	5.4	4.3	3.5	1.4	-0.8

주 | 2015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 4. 투자

### 가.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일차산품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해 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 2015년 투자는 전년대비 3.4% 하락함.

-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도 전년대비 22%(1,070억 달러) 감소함.
-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19.6%)와 브라질(-13.7%)에서 투자가 두 자릿수의 하락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페루에서 투자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투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감.

**주요국의 실질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19.6	-6.8	3.0	-5.4	5.1
브라질	6.8	0.8	5.8	-4.5	-13.7
칠레	15.0	11.6	2.5	-6.2	0.4
콜롬비아	19.0	4.7	6.0	10.9	2.9
멕시코	7.8	4.8	-1.6	2.9	4.4
페루	6.0	16.5	7.7	-2.1	-5.2
베네수엘라	4.4	23.3	-9.0	-16.9	-19.6
라틴아메리카	9.3	3.9	3.1	-1.7	-4.5

주 | 2015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나. 투자율(GDP대비)**

::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투자율(GDP대비)도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투자율은 2014년 20.8%에서 2015년 19.7%로 하락함.

| 국별로는 브라질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20.3% → 18.5%)를 보임.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라틴아메리카 평균이하의 투자율을 보임.

주요국의 투자율(GDP대비)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19.8	18.3	18.3	17.2	17.3
브라질	21.1	20.6	21.3	20.3	18.5
칠레	22.8	24.1	23.6	21.8	21.5
콜롬비아	24.4	24.6	24.8	26.3	26.4
멕시코	21.9	22.1	21.5	21.6	21.9
페루	24.3	26.3	26.1	25.0	25.3
베네수엘라	18.7	21.9	20.7	16.8	-
라틴아메리카	21.3	21.3	21.5	20.8	19.7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ECLAC.

5.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상품수출)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수출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12.1%)함.

| 이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총 수출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교역조건은 전년보다 9% 하락함. 그러나 소지역별로 교역조건은 상이한 양상을 보임.

- 일차산품 수출국이 많은 남미지역의 교역조건이 13% 하락한데 반해 중미와 카리브지역의 교역조건은 각각 5%, 2% 개선됨.
- 일차산품 수출국 중에서도 석유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27%)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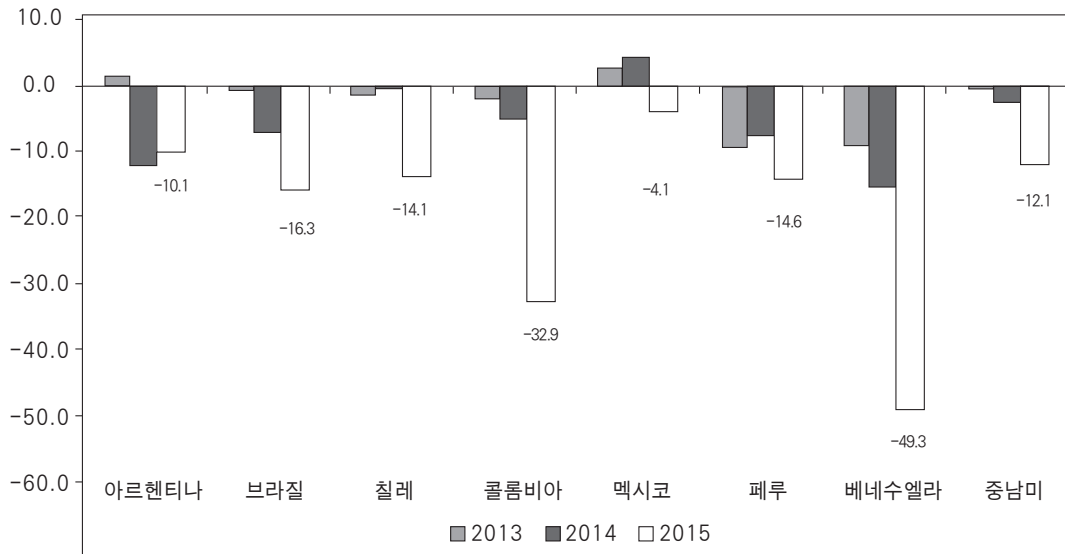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세(-49.4%)가 가장 큼.

| 그밖에 콜롬비아(-32.9%), 브라질(-16.3%), 페루(-14.6%), 칠레(-14.1%)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수출 하락세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미국의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은 공산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멕시코의 수출은 4.1% 하락에 그침.

주요국의 수출 증기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수출 감소세로 라틴아메리카의 수출은 2014년보다 1,394억 달러 줄어든 1조 177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808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을 기록했으며, 브라질(1,882억 달러), 칠레(650억 달러), 아르헨티나(647억 달러), 콜롬비아(383억 달러), 베네수엘라(378억 달러), 페루(338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83.9	80.6	81.7	72.0	64.7
브라질	255.3	243.4	241.9	224.8	188.2
칠레	81.3	77.7	76.5	75.7	65.0
콜롬비아	58.2	61.6	60.2	57.0	38.3
멕시코	349.4	370.8	380.0	397.1	380.8
페루	46.3	47.5	42.9	39.6	33.8
베네수엘라	93.6	98.0	88.7	74.7	37.8
라틴아메리카	1,189.7	1,194.5	1,187.7	1,157.1	1,017.7

자료 | Global Insight.

## 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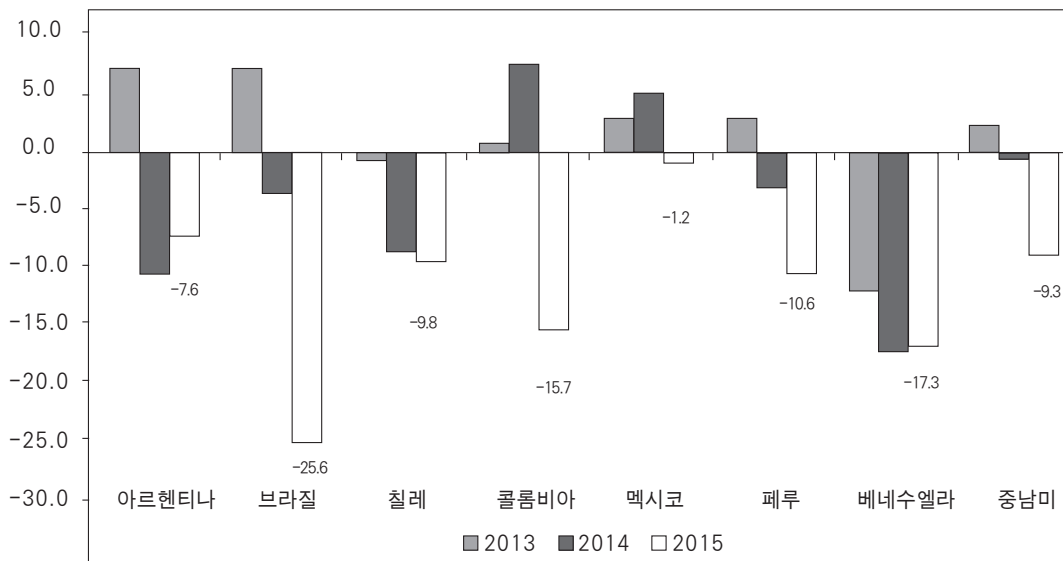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침체를 반영해 수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2015년 라틴아메리카 수입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9.3%)를 보임.

| 그러나 이는 전 세계(-12.3%) 및 개도국(-11.2%)의 수입 감소세보다는 낮은 것임.

### 주요국의 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국별로는 브라질의 수입 감소세(-25.6%)가 가장 두드러짐.

| 그밖에 베네수엘라(-17.3%), 콜롬비아(-15.7%), 페루(-10.9%), 칠레(-9.8%)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의 수입 하락세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멕시코의 수입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1.2% 하락에 그침.

:: 지속적인 수입 감소세를 반영해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수입은 전년보다 1,093억 달러 감소한 1조 606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952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1,716억 달러), 칠레(613억 달러), 아르헨티나(606억 달러), 콜롬비아(519억 달러), 베네수엘라(392억 달러), 페루(364억 달러)가 이음.



###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73.8	68.6	73.6	65.5	60.6
브라질	226.1	223.7	239.9	230.8	171.6
칠레	70.4	75.4	74.7	68.0	61.3
콜롬비아	52.1	56.7	57.1	61.6	51.9
멕시코	350.8	370.8	381.2	400.0	395.2
페루	37.1	41.1	42.3	40.8	36.4
베네수엘라	52.4	65.7	57.5	47.3	39.2
라틴아메리카	1,119.3	1,154.7	1,181.7	1,169.9	1,060.6

자료 | Global Insight.

###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지속적인 수출 감소로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수지는 2014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2015년에는 그 적자폭이 더욱 커짐.

| 2015년 무역적자규모는 429억 달러로 2014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함.

| 국별로는 멕시코가 145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콜롬비아(-136억 달러), 페루(-2.6억 달러), 베네수엘라(-1.4억 달러)도 무역적자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는 무역흑자를 기록함.
- 베네수엘라의 경우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데 반해 브라질의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섬.

###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10.1	12.0	8.0	6.4	4.1
브라질	29.1	19.6	2.0	-6.0	16.6
칠레	10.9	2.3	1.8	7.7	3.7
콜롬비아	6.1	4.9	3.1	-4.5	-13.6
멕시코	-1.4	0.0	-1.2	-2.8	-14.5
페루	9.2	6.3	0.6	-1.2	-2.6
베네수엘라	41.2	32.3	31.3	27.4	-1.4
라틴아메리카	70.3	39.8	6.1	-12.8	-42.9

자료 | Global Insight.

::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무역외 수지의 개선으로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경상수지적자는 2014년보다 소폭 개선된 1,64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브라질이 631억 달러로 가장 큰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으며, 멕시코(-326억 달러), 베네수엘라(-225억 달러), 콜롬비아(-189억 달러), 아르헨티나(-121억 달러), 페루(-63억 달러), 칠레(-36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무역수지 악화로 베네수엘라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함.

###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5.1	-4.3	-7.7	-8.9	-12.1
브라질	-53.2	-53.7	-81.3	-103.7	-63.1
칠레	-3.2	-9.7	-10.1	-3.0	-3.6
콜롬비아	-9.7	-11.3	-12.4	-19.6	-18.9
멕시코	-13.2	-15.9	-29.7	-24.0	-32.6
페루	-3.2	-5.2	-8.4	-8.0	-6.3
베네수엘라	31.9	5.0	2.6	3.0	-22.5
라틴아메리카	-68.0	-108.2	-159.2	-174.6	-164.5

자료 | Global Insight.

::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GDP대비 경상수지적자는 3.1%를 기록함.

| 국별로는 콜롬비아가 -6.5%로 경상수지적자가 가장 컸으며 베네수엘라(-4.4%), 브라질(-3.6%), 페루(-3.3%)가 그 뒤를 이음.

|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경상수지적자가 악화되는데 반해 브라질과 페루에서 경상수지적자는 소폭 개선됨.

###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0.9	-0.7	-1.2	-1.6	-2.0
브라질	-2.0	-2.2	-3.3	-4.3	-3.6
칠레	-1.3	-3.6	-3.7	-1.2	-1.5
콜롬비아	-2.9	-3.1	-3.3	-5.2	-6.5
멕시코	-1.1	-1.3	-2.4	-1.9	-2.8
페루	-1.9	-2.7	-4.2	-4.0	-3.3
베네수엘라	10.1	1.3	0.7	0.9	-4.4
라틴아메리카	-1.2	-1.8	-2.6	-2.9	-3.1

자료 | Global Insight.

### 6. 정부 지출 및 재정수지

:: 라틴아메리카의 정부지출은 일차산품 국제가격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 수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됨.

|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2014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3%에 그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정부지출이 전년보다 증가함. 그에 반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지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함.

### 주요국의 정부 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8.8	6.0	4.1	2.5	7.5
브라질	2.2	2.3	1.5	1.2	-0.4
칠레	2.7	3.4	3.4	4.5	5.0
콜롬비아	3.6	6.3	9.2	6.2	1.9
멕시코	2.4	3.5	1.0	2.4	2.2
페루	4.7	8.1	6.8	9.9	5.1
베네수엘라	5.9	6.3	3.3	0.6	-4.1
라틴아메리카	3.0	3.5	2.6	2.4	1.3

주 | 2015년은 추정치 자료  
자료 | Global Insight.

::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2015년 재정수지는 2014년에 비해 크게 악화됨.

|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재정수지적자(GDP대비)는 2014년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한 5.5%를 기록함.

|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들이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함.

| 국별로 재정수지 악화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의 재정수지적자 확대에 연유함.

| 특히 브라질의 재정수지적자(GDP대비)가 전년보다 3.3%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1.2	-1.9	-1.8	-2.4	-4.8
브라질	-2.5	-2.3	-3.0	-6.0	-9.3
칠레	1.5	0.6	-0.7	-1.5	-2.8
콜롬비아	-0.5	1.3	-0.4	-2.3	-4.1
멕시코	-2.5	-2.6	-2.3	-3.2	-3.2
페루	3.3	3.4	2.0	0.9	-1.4
베네수엘라	-11.9	-11.4	-11.4	-11.7	-13.7
라틴아메리카	-1.9	-1.8	-2.2	-4.1	-5.5

자료 | Global Insight

## 7. 실업률

::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성장둔화를 반영해 실업률은 증가세로 돌아섬.

|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은 6.6%를 기록함.

:: 이 같은 실업률 증가는 국별로 브라질과 페루의 고용시장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브라질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2.1%포인트 증가한 6.9%에 달함.

| 페루의 실업률도 경기둔화를 반영해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6.5%를 기록함.

###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7.2	7.2	7.1	7.3	6.3
브라질	6.0	5.5	5.4	4.8	6.9
칠레	7.1	6.4	5.9	6.4	6.3
콜롬비아	11.5	11.2	10.6	9.9	9.6
멕시코	5.9	5.8	5.7	5.8	5.1
페루	7.7	6.8	5.9	6.0	6.5
베네수엘라	8.3	8.1	7.8	7.0	-
라틴아메리카	6.7	6.4	6.2	6.0	6.6

자료 | ECLAC.

### III. 금융·외환지표

#### 1.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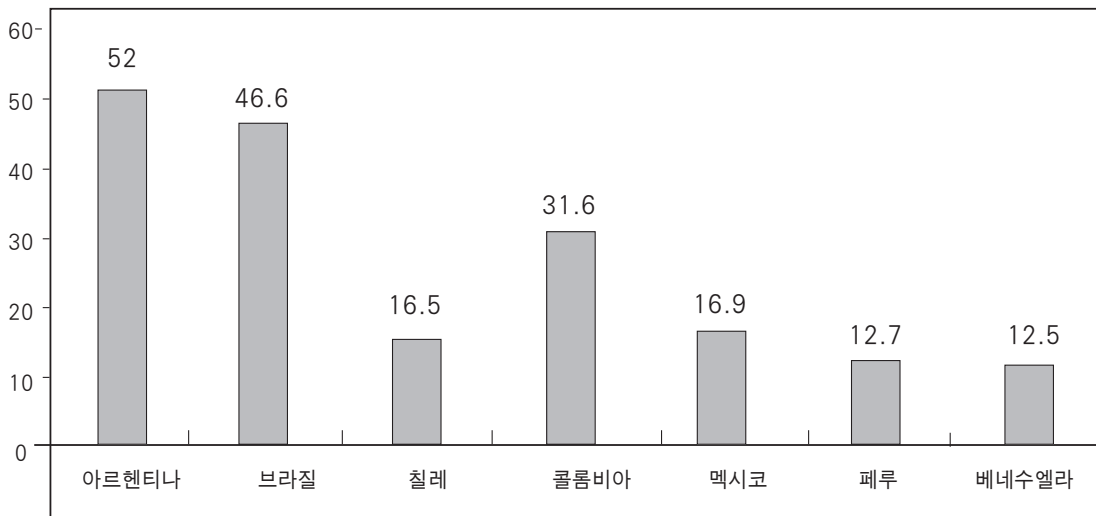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은 일차산품 국제가격의 점진적인 하락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며 큰 폭으로 상승(자국통화 가치 하락)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52%), 브라질(47%), 콜롬비아(32%), 멕시코(17%), 칠레(17%), 페루(13%) 순으로 환율 상승세가 현저함.

| 특히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환율 변동이 두드러짐.

주요국의 환율 변동률

(단위: %, 전년대비)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가치 상승)을 의미  
자료 | 각국 중앙은행

###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4.30	4.92	6.52	8.55	13.00
브라질	1.88	2.04	2.34	2.66	3.90
칠레	521.46	478.60	523.76	607.38	707.34
콜롬비아	1,942.70	1,768.23	1,926.83	2,392.46	3,149.47
멕시코	13.99	13.01	13.08	14.72	17.21
페루	2.70	2.55	2.79	2.99	3.37
베네수엘라	4.29	4.29	6.28	12.00	13.50

자료 | 각국 중앙은행

## 2. 금리

::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단기 금리가 상승세를 보임.

|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에서 금리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단기금리는 2014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11%를 기록함.

|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중에서는 칠레가 유일하게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

### 주요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 추이

(단위: %)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10.7	12.0	14.9	20.4	21.2
브라질	11.7	8.5	8.2	10.9	13.4
칠레	12.4	13.5	13.2	10.8	9.3
콜롬비아	4.2	5.4	4.2	4.1	4.6
멕시코	4.2	4.2	3.8	3.0	3.0
페루	18.7	19.2	18.1	15.7	16.1
베네수엘라	17.4	16.2	15.6	17.2	20.0
라틴아메리카	9.8	8.7	8.6	9.8	11.0

자료 | Global Insight.

### 3.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12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국별/소지역별로 라틴아메리카의 소비자물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임.

| 멕시코 및 중미지역에서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상승세가 둔화됨.

| 그에 반해 남미지역에서 소비자물가는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식품가격 인상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남미 국가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함.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9.8	10.0	10.6	21.4	17.1
브라질	6.6	5.5	6.2	6.3	8.9
칠레	3.3	3.0	1.9	4.4	4.3
콜롬비아	3.4	3.2	2.0	2.9	5.0
멕시코	3.4	4.1	3.8	4.0	2.7
페루	3.4	3.7	2.8	3.2	3.5
베네수엘라	27.1	21.1	38.5	57.3	116.1
라틴아메리카	6.6	6.0	7.0	8.7	12.4

자료 | Global Insight

### 4. 주가

:: 경제상황 악화를 반영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가 하락함.

| 콜롬비아 주가가 전년대비 23.7% 폭락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브라질(-13.3%), 페루(-12.8%) 주가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보임.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 주가는 2015년 12월 마크리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전년대비 36.1% 상승함.



##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MERY)	2,463	2,854	5,391	8,579	11,675
브라질 (BOVESPA)	56,754	60,952	51,507	50,007	43,349
칠레(IGPA)	20,130	21,070	18,227	18,870	18,151
콜롬비아 (COLCAP)	1,572	1,833	1,615	1,512	1,153
멕시코(IPC)	37,078	43,706	42,727	43,146	42,977
페루(LIMA)	19,475	20,629	15,753	14,794	12,901
베네수엘라(IBC)	117,036	471,437	2,736,585	3,859	14,588

자료 | Bloomberg.

## 5. 외환보유고

:: 2014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3.8% 감소함.

| 이 같은 외환보유고 감소는 2003년 일차산품 슈퍼사이클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임.

| 외환보유고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5년 15.3%로 증가함.

:: 국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함.

|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22개국에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함. 그중에서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 감소가 두드러짐.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3,612억 달러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1,819억 달러로 그 뒤를 이음.

• 양국의 외환보유고가 라틴아메리카 전체 외환보유고의 66% 비중을 차지함.

##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르헨티나	46,376	43,290	30,599	31,443	26,970
브라질	352,012	373,147	358,808	363,551	361,230
칠레	41,979	41,640	41,094	40,447	38,593
콜롬비아	32,303	37,474	43,639	47,328	46,830
멕시코	149,209	167,050	180,200	195,682	181,929
페루	48,859	64,049	65,710	62,353	62,213
베네수엘라	29,892	29,890	21,481	22,061	15,045
라틴아메리카	773,631	835,735	830,009	857,437	824,795

주 | 2015년은 11월 말 기준  
자료 | ECLAC.

## 6. 국가신용등급

::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임.

|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 2015년에는 거시경제여건 악화로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함.

|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투자적격 등급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됨.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6년 4월말 기준)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과테말라	Ba1 2010-06-01	Stable 2008-12-18	BB 2006-07-17	Stable 2012-09-06	BB 2014-06-20	Stable 2014-06-20
도미니카공화국	B1 2010-04-22	Stable 2011-06-13	B+ 2011-06-13	Stable 2011-06-13	B 2006-05-05	Stable 2012-12-11
멕시코	A3 2014-02-05	Stable 2014-02-05	BBB+ 2013-12-19	Stable 2013-12-19	BBB+ 2013-05-08	Stable 2013-05-08
베네수엘라	Caa3 2015-01-13	Stable 2015-01-13	CCC 2015-02-09	Negative 2014-09-16	CCC 2014-12-18	- 2014-12-18
볼리비아	Ba3 2012-06-08	Stable 2012-06-08	BB 2014-05-15	Stable 2014-05-15	BB- 2012-10-02	Positive 2014-12-08
브라질	Baa2 2013-10-02	Negative 2014-09-09	BBB- 2014-03-24	Stable 2014-03-24	BBB 2011-04-04	Negative 2015-04-09
아르헨티나	Caa1 2014-07-31	Negative 2014-07-31	SD 2014-07-30	- 2014-07-30	RD 2014-07-31	- 2014-07-31
에콰도르	B3 2014-12-19	Stable 2012-09-13	B+ 2014-08-14	Stable 2014-08-14	B 2013-10-18	Stable 2013-10-18
엘살바도르	Ba3 2012-11-05	Stable 2012-11-05	BB- 2011-01-14	Negative 2012-12-21	BB- 2013-07-16	Negative 2013-07-16
우루과이	Baa2 2014-05-29	Stable 2014-05-29	BBB- 2012-04-03	Stable 2012-04-03	BBB- 2013-03-07	Stable 2013-03-07
칠레	Aa3 2010-06-16	Stable 2010-06-16	AA- 2012-12-26	Stable 2012-12-26	A+ 2011-02-01	Stable 2011-02-01
코스타리카	Ba1 2014-09-16	Stable 2014-09-16	BB 2005-06-10	Stable 2008-10-10	BB+ 2011-03-04	Stable 2011-03-04
콜롬비아	Baa2 2014-07-28	Stable 2014-07-28	BBB 2013-04-24	Stable 2013-04-24	BBB 2013-12-10	Stable 2013-12-10
트리니다드토 바고	Baa1 2006-07-13	Stable 2006-07-13	A 2009-09-14	Stable 2011-08-04		
파나마	Baa2 2012-10-31	Stable 2012-10-31	BBB 2012-07-02	Stable 2012-07-02	BBB 2011-06-02	Stable 2011-06-02
파라과이	Ba1 2015-03-20	Stable 2015-03-20	BB 2014-06-11	stable 2012-08-29	BB 2015-01-29	Stable 2015-01-29
페루	A3 2014-07-02	Stable 2014-07-02	BBB+ 2013-08-19	Stable 2013-08-19	BBB+ 2013-10-23	Stable 2013-10-23

자료 | Moody's, S&P, Fitch.

## IV. 기타 지표

### 1. 라틴아메리카 기술지수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9개국 기준) 중에서는 우루과이의 기술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우루과이에 이어서는 아르헨티나(2위), 칠레(3위), 코스타리카(4위), 브라질(5위) 순으로 기술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에 반해 쿠바,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기술지수가 낮은 국가들로 평가됨.

라틴아메리카 기술 지수(Latin Technology Index 2015)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우루과이	32.43
2	동일	아르헨티나	29.45
3	동일	칠레	28.43
4	동일	코스타리카	26.43
5	+1	브라질	26.08
6	-1	파나마	25.67
7	동일	베네수엘라	21.72
8	+1	엘살바도르	21.33
9	-1	콜롬비아	21.27
10	+1	멕시코	18.74
11	-1	에콰도르	18.65
12	+1	페루	18.11
13	+2	파라과이	17.15
14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6.30
15	+1	볼리비아	15.59
16	-4	과테말라	15.39
17	동일	니카라과	15.28
18	동일	온두라스	13.36
19	동일	쿠바	8.00
라틴아메리카 평균			20.49

주 | 라틴아메리카 기술발전 지수는 유무선 전화, PC,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Trade Group.

## 2. 중남미 글로벌화지수 평가

:: 라틴아메리카 비교 대상 18개국 중에서는 파나마가 글로벌화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됨.

| 그밖에 온두라스(2위), 니카라과(3위), 칠레(4위), 파라과이(5위) 순으로 글로벌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글로벌화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평가됨.

중남미 글로벌화지수(Latin Globalization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지수
1	동일	파나마	19.11
2	동일	온두라스	15.85
3	동일	니카라과	14.75
4	동일	칠레	13.97
5	동일	파라과이	13.67
6	+2	코스타리카	12.71
7	+2	도미니카공화국	12.59
8	-2	볼리비아	12.58
9	-2	베네수엘라	12.30
10	+1	엘살바도르	12.01
11	-1	우루과이	11.85
12	동일	멕시코	11.54
13	동일	에콰도르	10.65
14	+3	아르헨티나	9.74
15	동일	콜롬비아	9.57
16	동일	과테말라	9.52
17	-3	페루	9.31
18	동일	브라질	8.55
라틴아메리카 평균			12.24

주 | 글로벌화 지수는 GDP대비 수출입,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수입, 해외송금 유입 비중, 인터넷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자료 | Latin Trade Group.

### 3. 라틴아메리카 노동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노동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 그밖에 멕시코(2위), 과테말라(3위), 파나마(4위), 콜롬비아(5위)도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노동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18위), 온두라스(17위), 베네수엘라(16위), 파라과이(15위) 등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라틴아메리카 노동환경(Latin Labor Index 2015)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321.6
2	동일	멕시코	282.7
3	동일	과테말라	193.7
4	동일	파나마	190.0
5	동일	콜롬비아	179.3
6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68.8
7	동일	페루	166.0
8	동일	니카라과	160.2
9	동일	코스타리카	154.0
10	동일	우루과이	152.5
11	동일	엘살바도르	147.2
12	동일	에콰도르	145.4
13	+1	브라질	131.9
14	-1	볼리비아	130.7
15	+1	파라과이	117.9
16	-1	베네수엘라	113.7
17	동일	온두라스	101.0
18	동일	아르헨티나	72.9
라틴아메리카 평균			162.8

주 | 라틴아메리카 18개국에서 모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Trade Group.

#### 4. 중남미 세제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의 세제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칠레에 이어 파라과이(2위), 과테말라(3위), 페루(4위), 온두라스(5위)도 세제환경이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18위), 볼리비아(17위), 아르헨티나(16위) 순으로 세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라틴아메리카 세제환경(Latin Tax Index 2015)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8.02
2	동일	파라과이	8.48
3	+3	과테말라	9.13
4	동일	페루	9.62
5	-2	온두라스	10.02
6	-1	우루과이	10.13
7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0.37
8	동일	엘살바도르	10.60
9	동일	코스타리카	10.66
10	동일	파나마	10.91
11	동일	멕시코	11.58
12	동일	니카라과	12.08
13	동일	에콰도르	12.12
14	동일	콜롬비아	12.54
15	동일	베네수엘라	18.58
16	동일	아르헨티나	21.37
17	동일	볼리비아	21.54
18	동일	브라질	36.39
라틴아메리카 평균			13.56

주 | 라틴아메리카 세제환경 지수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법인세율, 이윤세율, 세금 납부 시간, 세금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Trade Group.

## 5.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의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밖에 파나마(2위), 멕시코(3위), 페루(4위)의 비즈니스 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의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Latin Business Index 2015)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20.12
2	동일	파나마	19.50
3	+1	멕시코	17.68
4	-1	페루	17.63
5	동일	코스타리카	17.41
6	동일	콜롬비아	17.23
7	+1	도미니카공화국	16.70
8	+2	파라과이	16.49
9	-2	우루과이	16.07
10	-1	과테말라	16.03
11	동일	에콰도르	15.77
12	+1	볼리비아	15.44
13	-1	엘살바도르	15.41
14	동일	니카라과	14.98
15	+1	온두라스	14.66
16	-1	브라질	14.48
17	동일	아르헨티나	6.38
18	동일	베네수엘라	-5.76
라틴아메리카 평균			14.79

주 | 라틴아메리카 비즈니스 환경은 거시경제환경, 기업환경, 글로벌화 및 경쟁력(관세, 치안 등 포함), 인프라발전, 정치환경을 종합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Index 2015.



## 6.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환경 평가

:: 라틴아메리카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의 인프라 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밖에 파나마(2위), 우루과이(3위), 코스타리카(4위), 아르헨티나(5위)도 인프라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18위), 파라과이(17위), 볼리비아(16위) 순으로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환경(Latin Infrastructure Index 2015)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1	칠레	73.40
2	-1	파나마	73.04
3	동일	우루과이	71.23
4	동일	코스타리카	65.72
5	동일	아르헨티나	65.44
6	동일	엘살바도르	63.53
7	동일	멕시코	61.09
8	동일	에콰도르	61.01
9	동일	브라질	60.58
10	+1	콜롬비아	57.80
11	+1	도미니카공화국	55.11
12	+1	페루	54.91
13	-3	과테말라	54.44
14	동일	니카라과	52.20
15	+1	온두라스	51.06
16	-1	볼리비아	50.81
17	동일	파라과이	50.07
18	동일	베네수엘라	46.63
라틴아메리카 평균			59.34

주 | 교통, 정보통신기술, 상수도, 전력 접근성 등 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Infrastructure Index 2015.